

2010년

인쇄계

10대

뉴스

01

### 서울 중구에 인쇄산업개발 진흥지구 지정

지난 5월 26일 서울시가 중구 을지로와 주교동 일대를 인쇄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지정, 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가칭)인쇄타운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인쇄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서울 시내에 산재한 준공업산업지역 등을 새로운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구를 인쇄산업진흥지구로 아닌 금융산업단지지로만 육성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오랜 전통을 갖고 이어져 온 인쇄타운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조정석)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 마침내 결실을 거둔 것이다. 그동안 인쇄업계는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김정전)를 발족하고 1만 인쇄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인쇄사가 밀집해있는 방산시장을 비롯하여 필동, 을지로, 충무로 등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서명운동을 펼쳐 온바 있다.

인쇄인들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서울시는 제2차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중구를 인쇄산업진흥지구로 선정했다. 진흥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주교동, 을지로5가, 오장동 일대에는 첨

단인쇄문화정보센터, 연관 산업 공동물류보관시설, 인쇄문화체험관, 산학연센터 등 다양한 인쇄산업 인프라를 구축되어 도심 재개발, 재정비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첨단 인쇄산업 지역으로 탈바꿈한 예정이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 법규정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지구 내 권장업종 용도의 부동산은 시세 및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경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통적인 도심형산업인 인쇄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2

### 인쇄문화의 날 · 서울인쇄대상 기념식 성료

지난 9월 14일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 공동 주최로 2010년 인쇄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임영호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전용진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종규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최창근 인쇄연합회 전회장, 허철종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노길용 부산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심응선 인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강규진 제주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김충진 한국이앤엑스 대표 등 귀빈 및 전현직 단체장, 정부 포상 및 인쇄문화대상 수상자,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충원 선문사 대표가 문화포장, 박제덕 (주)삼원프린테크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 김종호 경남인쇄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진 (주)양지사 대표이사 외 15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류정열 유신당씨앤씨(주) 대표이사가 인쇄문화대상 경영부문, 전익성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주) 대표이사가 인쇄문화대상 진흥부문, 이원재 동양잉크 기술연구소 소장이 인쇄문화대상 기술부문, 이학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가 인쇄문화대상 특별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같은 날 서울인쇄센터와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주최한 제5회 서울인쇄대상 기념식에서는 '서울인쇄대상'에 총 100여점의 작품이 응모해 대상 1점, 금·은·동 각 3점과 입선 26점 등 총 3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상은 작품명 'Seung H-Sang' (승효상)을 출품한 팬다컴프로세스(대표 천용관)가 수상했으며 금상은 은성정밀인쇄(주)(대표이사 김국)의 '코오롱 바디플랜' 외 2개 업체, 은상은 (주)마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박진만)의 '아이비리더 소프트웨어 패키지' 외 2개 업체, 동상은 이팩피앤피(주)(대표이사 이강문)의 '프로세스 4 컬러 차트' 외 2개 업체가 각각 수상했다.



**03**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  
본격 활동

지난 6월 9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에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인쇄업계 최대 현안의 하나인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는 지난 1월 흥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이 업계의 현안인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자고 합의한데 따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포스터와 표어 등은 서울조합에서 제작하였으며 각 지방조합 회원사들이 부착하는 것으로 결정, 진행되었다.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의 위원장은 연합회장이, 위원은 각 조합의 이사장들이 맡고 있다. 운동본부는 제삿 값아 먹기일 뿐 아니라 인쇄업계의

내일을 어둡게 만드는 덤핑수주 등을 없애기 위해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의 설치를 계기로 제값받기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인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04**  
키페스 비롯해  
다양한 국제행사

급변하는 인쇄산업의 비전을 제시해 준 국내 최대 인쇄인의 축제인 제17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 2010)가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키펙스 전시장에서 열렸다.

KIPES2010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3개국 308개사의 세계 우수 업체들이 참가해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으며 최근 변화하는 인쇄 트렌드와 함께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외국인 800여명을 비롯한 4만여 명이 내방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5천억 원의 내수 상담과 600억 원 이상의 수출상담 등이 이뤄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인 디지털인쇄 대표업체들의 최신 제품과 한층 다양해진 국내의 후가공 관련 장비들, 인쇄와 IT의 융합으로 진화되고 있는 인쇄물 및 특수인쇄,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케 해주는 인쇄관련 솔루션, 고품질 인쇄를 위한 다양한 특수지, 컬러 매니지먼트 제품 등 인쇄산업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참가하는 '한·중·일 인쇄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을 비롯, 키펙스 전시장과 인접한 파주인쇄출판도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참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05**

**6·2 지방선거, 인쇄업계 선거특수 없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2일 치러졌으나 인쇄업계가 기대했던 선거특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약 5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방선거에서 인쇄업계에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은 대형기획사 위주로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소규모 인쇄업체에게는 일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명함이나 홍보물 등의 소형 인쇄물의 주문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대규모 인쇄물을 발주하는 관공서 수주 물량이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대폭 감소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갈수록 선거 인쇄물이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도 소형인쇄업체들의 입지를 좁힌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정작 인쇄홍보물의 종류와 수량이 줄어든 것도 인쇄수요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에 더해 일부 언론사에서 언론사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소요되는 입후보자의 홍보용 인쇄물을 크게 잠식한 것도 선거특수 실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지역과 밀착된 지방선거임에도 지역 인쇄업체를 외면하거나 인쇄대금을 후결제하는 잘못된 관행을 강요한 일부 후보자들의 행태도 인쇄업계 수익성 악화에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06**

**인협, IPEX에 한국인쇄홍보관 조성**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인쇄기자재 전시회인 'IPEX2010'에 약 30평방미터 규모의 한국인쇄관을 조성하여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 수출활동을 전개했다.

인협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한국이앤엑스와 공동으로 동 인쇄관을 조성하였으며 이곳에 찬란한 인쇄문화와 현대의 인쇄물, 인쇄기자재 카탈로그 등을 전시하는 한편, 직지 및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시연행사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에서는 은성정밀인쇄(주), 청아문화사, ACE기계(주), 두산동

아, (주)동양인크, (주)미래엔컬처그룹, 대호기계 등 22개 업체가 카탈로그 및 인쇄물을 인협을 통해 위탁 전시해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인협이 IPEX 전시장에 우리나라에서 홍보관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통해 인쇄물 수출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쇄기자재의 수출에도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인협은 앞으로도 해외에 한국인쇄문화산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07**

**인협, 서체개발 등 국고지원 사업 전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2010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차 인쇄공용서체(각진고딕) 개발 사업을 전개했다. 2차로 개발되는 인쇄공용서체는 인쇄업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움(각진고딕) 서체 1종 1만8자로 한글 기본(중간)체 2350자, 가는체2350자, 굵은체 2350자와 함께 기호 및 숫자 등 약물 2958자, 기본(중간)체 986자, 가는체 986자, 굵은체 986자이다. 이와 함께 인협은 국고사업의 일환으로 인쇄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상반기에 인디자인 편집실무, 디지털인쇄 실무 등 2개 과목을, 하반기에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과정, 인쇄물 수출전문가 과정 등 2개 과목을 개설해 각각 4주간 교육을 실시했다. 인쇄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관련교재도 무상으로 제공됐다. 인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고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08**  
**인쇄 원부자재**  
**가격 폭등**

각종 인쇄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쇄업계의 경영에 어려움을 더했다. 인쇄용지, CTP판재, 인쇄용 잉크 등 인쇄 원부자재의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그중의 일부 품목은 2~3달 사이에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CTP판재의 경우에는 몇몇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원부자재 가격인상은 인쇄업계의 경영을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쇄용지의 경우, 주요 펄프 수출국인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국제 펄프가격이 급등하고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일부에서 사재기를 함에 따라 한동안 마진율이 낮은 백상지 등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인쇄출력용 필름과 플레이트 공급업체 7개사는 지난 10월 담합혐의로 총 17억여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 받았다. 현실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한 구매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쇄업체들은 필요 이상 비용지불로 경영압박에 한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이뤄져온 관행적인 면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업체의 어려움과 무관한 공급업체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인쇄업계와 원부자재 공급업체 사이에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수급 불균형 문제 및 적정공급가를 찾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09**  
**직지 및 현대인쇄**  
**국내외 15곳서**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올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제17회 국제인쇄산업전 등 국내외의 15곳에서 직지 및 한국 현대인쇄를 홍보하는 전시회를 가졌다.

순회전시회에서는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 금속활자가 인류 발달에 끼친 영향, 흥덕사 금속활자가 과학발달사에 준 역할 등을 홍보하는 한편으로 현재 국내인쇄업계의 뛰어난 인쇄기술을 소개하는 책자류와 브로슈어 등을 전시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현지에 상주하면서 관람안내와 직지 금속활자판 인쇄체험을 실시했으며 국내외의 관람자들이 흥미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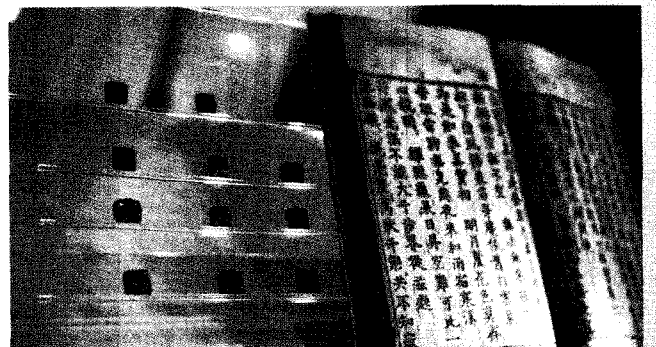


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지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인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여 곳에서 펼친 직지 및 현대인쇄 순회전시회에서 각 전시회마다 고인쇄 시연코너에 인파가 대거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10**  
**직지보다 140년**  
**앞선 금속활자**  
**발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직지'보다 빠른 활자가 지난 9월 공개됐다. 직지보다 최소 138년 이상 앞서는 최고의 금속활자로 추정되고 있는 활자는 <증도가자>이다. 경북

대 남권희 교수에 의해 공개된 <증도가자>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어낸 금속활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송나라에서 초간본이 수입된 이후에 이를 금속활자로 찍어내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금속활자도, 인쇄한 책도 전래되지 않았다. 다만 보물 제758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권말에 1239년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서 <증도가>를 찍어냈다는 기록과 함께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어 목판본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에, 그리고 기록상의 금속활자는 그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도가자>가 공인될 경우에는 1377년에 인쇄된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한 138년 이상 앞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권희 교수는 연구 결과, 그가 연구한 금속활자의 글씨체와 목판본에 있는 글씨체가 일치한다며 "밝을 명자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복'자와 형태적으로 같으며 서체도 13세기 당시 책(판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활자를 주조한 방식이 직지와 다른 주물사주조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증도가자>에 대해 증도가의 행간·자간은 물론 글자의 서체도 확연히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최고 금속활자 공인될 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